

【 국 어 】

1. 다음 편지글에서 고쳐 쓸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할머니께
할머니, 작년 여름에 함께 장터에 가서 **갈치줄임**을 먹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또 할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만두국**과 **떡볶기**는 너무 맛있었어요. 할머니! 항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할머니가 정말 보고 싶어요. 이번 여름 방학 때 **배요**.

- ① 갈치줄임 → 갈치조림
- ② 만두국 → 만둣국
- ③ 떡볶기 → 떡볶이
- ④ 배요 → 뵈요

2.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국어 문헌】
불·휘기·픈남·군부루·매아·니·뵐·씨
꽃·도·코여·름·하·노·니
:시·미기·픈·므·른·꺄·무·래아·니그·출·씨
:내·히이·러바·루·래·가·노·니

【현대 국어 풀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 좋고 열매 많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川]가 이루어져 바다에 갑니다.

- ① 이어 적기가 적용되었다.
- ②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 ③ 주격 조사 ‘가’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점이 쓰였다.

3. 높임법의 쓰임이 다른 것은?

- ① 내일은 잊지 않고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 드려야겠다.
- ② 오늘도 할머니께서는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셨다.
- ③ 선생님께서 누나와 함께 와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 ④ 큰아버지께서는 나를 무척 아끼셨다.

4.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은?

- ① 이 건물은 학교의 체육관이에요, 그 옆 건물은 본관이다.
- ② 저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요, 친구이다.
- ③ 늦지 않게 빨리 오시오.
- ④ 이것은 책이 아니요.

5.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문화의 특성도 인간의 성격도 크게 나누어 보면 ‘심근성(深根性)’과 ‘천근성(淺根性)’으로 ㉠ 나누어 볼 수 있다. 심근성의 문화는 이념이나 정통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대륙형 문화이며, 천근성의 문화는 이식과 수용·적응이 잘되는 해양성 섬 문화이다. 소나무 가지는 한번 꺾이고 부러지면 재생 불가능이지만 버들은 아무 데서나 새 가지가 돋는다. 이렇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깎깎한 소나무 문화와는 달리 버드나무는 뿌리가 얕으므로 오히려 덕을 본다.

- 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 ② 학생들은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 편을 갈랐다.
- ③ 형제란 한 부모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다.
- ④ 이 사과를 세 조각으로 나누자.

6. ㉠~㉤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음운 환경에서 ‘ㄱ, ㄷ, ㅂ, ㅅ, ㅈ’ 같은 예사소리가 ‘ㄲ, ㄸ, ㅃ, ㅆ, ㅉ’ 같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된소리되기 또는 경음화라고 한다. 된소리되기의 종류로는 ㉠ ‘ㄱ, ㄷ, ㅂ’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 어간 받침 ‘ㄴ, ㄹ’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 ‘ㄹ’로 끝나는 한자와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있는 체언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등이 있다.

- ① ㉠: 잡고 → [잡꼬]
- ② ㉡: 손재주 → [손째주]
- ③ ㉢: 먹을 것 → [머글쩍]
- ④ ㉣: 갈등 → [갈똥]

7. ㉠,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문장 속에 안겨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하는 절을 안긴문장이라고 하며 이러한 절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은문장에는 ㉠ 명사절을 안은문장, ㉡ 관형절을 안은문장, 부사절을 안은문장, 서술절을 안은문장, 인용절을 안은문장이 있다.

- ① ㉠ 나는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 그는 열심히 공부하는 그녀를 떠올린다.
- ② ㉠ 오늘은 밖에 나가기가 싫다.
 ㉡ 누나는 마음이 넓다.
- ③ ㉠ 그것은 내가 입을 옷이다.
 ㉡ 꽃이 활짝 핀 봄을 기다린다.
- ④ ㉠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 그녀의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8. 다음 글에 드러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튿날 출근 끝에 가까운 읍의 수령들이 모여든다. 운봉의 장관,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 원님이 차례로 모여든다. 왼쪽에 행수 군관, 오른쪽에 청령, 사령이 있고 본관 사또는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있어 하인 불러 분부하되,
“관청색 불러 다과를 올리라. 육고자 불러 큰 소를 잡고, 예방(禮房) 불러 악공을 대령하고, 승발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사령 불러 잡인을 금하라.”
이렇듯 요란할 제 온갖 깃발이며 삼현육각 풍류 소리 공중에 떠 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 손 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등덩실 하는 소리에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여봐라 사령들아, 너의 사또에게 여쭙어라. 먼 데 있는 절인이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 먹자고 여쭙어라.”
저 사령의 거동 보소.
“우리 사또님이 절인을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오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
등을 밀쳐 내니 어찌 아니 명관(名官)인가.
운봉 영장이 그 거동을 보고 본관 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저 절인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
본관 사또 하는 말이,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마는’ 하는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어사또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
운봉 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듚시라고 하여라.”
- 작자 미상, 『춘향전(春香傳)』

- ① 잔치가 열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 ② 인물의 심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③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④ 서술자는 직접 말을 건네며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프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닉일이나 사름 올라.
내 므음 둘 디 업다. 어드러로 가랏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놓픈 뵈히 올라가니
구름은 쿠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리(千里)를 브라보랴.
출하리 물그의 가 빅 길히나 보랴 하니
〔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딴 가고 뵈 빅만 걸렸는고.
강턴(江天)의 혼자 셔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흔더이고.
모첨(茅簷)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하야 불갓는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니니
저근덜 역진(力盡)하야 풋즘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옥(玉) 그튼 열구리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므음의 머근 말슴 슬궤장 솟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하며
정(情)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즘은 엇디 썩듯던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브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썩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들이야 쿠니와 구즌 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9.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특정한 시어를 반복해 안빈낙도의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과 속세의 대비를 통해 시적 화자의 처지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꿈에서 임과 재회하고 있다.
- ② 밤에서 새벽으로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 있다.
- ③ 임의 소식을 전해 주는 이는 오늘도 오지 않았다.
- ④ 사공은 화자의 절박한 상황을 알고 도와주고 있다.

11. 윗글의 〔브람〕과 시적 기능이 가장 먼 것은?

- ① 구름 ② 안개 ③ 일월 ④ 물결

※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가 발달하면서 화법과 작문의 윤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잘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상호 신뢰가 깨질 수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 ㉠ 노력한다.

㉡ 그런데 청자나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지킬 수 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 등을 표절하거나 도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 등을 인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거나 인용의 출처를 ㉢ 제출해야 하며, 내용의 과장·축소·왜곡 없이 정확하게 인용해야 한다. 또한 출처를 명시하더라도 과도하게 인용하지 않아야 한다. 과도한 인용은 출처 명시와는 무관하게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준수한다면 화자나 필자는 청자나 독자로부터 더욱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나 필자는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이를 ㉣ 지키고 준수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12.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 ② ㉡: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 주지 못하므로 ‘우선’으로 바꾼다.
- ③ ㉢: 문맥을 고려하여 ‘생략’으로 교체한다.
- ④ ㉣: 뒤의 단어와 의미상 중복되므로 삭제한다.

13.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법과 작문의 절차 ② 화법과 작문의 목적
- ③ 화법과 작문의 기능 ④ 화법과 작문의 윤리

※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호오, 호오.” 어린 마음에 할머니나 어머니의 입김이 와 닿기는 비단 다쳐서 아파할 때만이 아니었다. 화롯불에 파묻어 말랑말랑 익힌 감자나 밤을 꺼내 껍질을 벗겨 주시면서도 “호오, 호오.” 입김을 불어 알맞게 식혀 주셨고, 끓는 국이나 찌개도 그렇게 식혀 주셨다. 먹고 싶은 걸 참느라 침을 꿀꺽 삼키며 그분들의 입을 쳐다보면서도 어린 마음속엔 그분들에 대한 신뢰감이 싹텄었다.

어찌 상처나 뜨거운 먹을 것에만 그분들의 입김이 서렸을까? 그분들의 입김은 온 집안에 서렸었다.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간혹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 나는 그것을 대문간에 들어서자마자 알아맞힐 수가 있었다. 집안 전체가 썰렁했다. 썰렁하다는 건 실제의 기온과는 상관없는 순전히 마음의 느낌이었고, 이 마음의 느낌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 먹는 도시락에도 어머니의 입김은 서려 있었고, 입고 다니는 옷에도 어머니의 입김은 서려 있었다. 나는 그때 ‘다꾸앙’이나 달고 끈적끈적해 보이는 멸치볶음, 콩자반 등등 반찬 가게에서 파는 도시락 찬만 가지고 다니는 아이를 속으로 무척 불쌍하게 여기고 나중엔 경멸하는 마음까지 품었던 것이 지금까지 생각한다. 어머니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걸 허구한 날 먹는 아이가 마치 햇빛은 아이처럼 보였던 것이다.

어린 날, 내가 누렸던 평화를 생각할 때마다 어린 날의 커다란 상처로부터 일용할 양식, 필요한 물건, 입고 다니던 옷, 그리고 식구들 사이, 집안 속 가득히 고루 스며있던 어머니의 입김, 그 따스한 숨결이 어제인 듯 되살아난다. 그것을 빼놓고 평화란 상상도 할 수 없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슬퍼하지 않은 어린 날이 어디 있으랴. 다만 그런 일이 어머니의 입김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과 평화로 회상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보니 내 자식들이나 내 손자들이 훗날 그들의 어린 날을 어떻게 기억할지 문득 궁금하고 한편 조심스러워진다. 나보다는 내 자식들이, 내 자식들보다는 내 손자들이 따뜻한 입김의 덕을 덜 보고 자라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허물만은 아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구태여 입김을 거칠 필요 없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법까지도 매스컴이나 그 밖의 정보를 통해 대량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대대로 물려오는 입김이 서린 가풍(家風)마저 소멸해 가고 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음식을 먹고도 배부르고,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옷을 입고도 등이 따뜻하고 예쁘다.

다쳐서 피가 났을 때 입김보다는 충분한 소독과 적당한

약이 더 좋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과 냉장고 속에 먹을 것만 있다면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집에서든 허전한 걸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아이는 처음부터 입김이 주는 살아 있는 평화를 모르는 아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입김이란 곧 살아 있는 표시인 숨결이고 사랑이 아닐까?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심심해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입김 속에서, 즉 사랑 속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평화가 아닐는지.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사랑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억지밖에 안 되리라. 숨결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다면 억지인 것처럼.

- 박완서, 「사랑의 입김」

14.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내부의 이야기와 외부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교차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물 간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윗글의 ‘입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한다.
- ② 유년 시절의 추억 속에 따뜻하게 스며들어 있다.
- ③ 요즘의 아이들에게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
- ④ 물질적 풍요로 점점 그 중요성이 잊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16. 다음 작품과 가장 관련 있는 한자성어는?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설워라커늘 짐을조차 지실까

- 정철, 「훈민가」

- ① 朋友有信 ② 長幼有序
- ③ 君臣有義 ④ 夫婦有別

※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눈 마주 휘여진 덕을 뉘라서 굶다턴고
 ㉠ 구불 절(節)이면 눈 속의 프를소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썬인가 흐노라
 - 원천석

(나)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황진이

(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다라 안자
 첫년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鵲)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 모쳐라 날낸 널식만정 ㉣ 에헐질 번 하괘라
 - 작자 미상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중심 소재는 ‘덕’이다.
- ② (나)의 화자는 임과의 재회를 바라고 있다.
- ③ (다)는 종장의 길이가 길어진 시조 형식을 보여 준다.
- ④ (가)~(다)는 종장 첫 구에 음수의 제약을 갖고 있다.

18. 윗글에서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굶힐
- ② ㉡: 잘라 내어
- ③ ㉢: 목이 터져라
- ④ ㉣: 멍이 들

19. 다음 글의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낮선 그림’의 대명사인 르네 마그리트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미술가로 자리 잡았다. 십여 년 전 서울의 한 백화점 새 단장 당시 그의 작품 「골콘다」가 커다란 가림막 그림으로 사용된 것과 <르네 마그리트>전이 서울의 미술관에서 대규모로 열려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은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의 주된 창작 기법인 데페이즈망(dé paysement)도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창의력과 상상력이 시장과 교육계의 화두가 되어 버린 요즘, 데페이즈망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 주고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의미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린이 미술 교육에 활용되고 있고, 기업인을 위한 창의력 교육에도 심심찮게 도움을 주고 있다.

데페이즈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轉置)’로 번역된다.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 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초현실주의 문학의 선구자 로트레아몽의 시에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서 만나듯이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데페이즈망의 표현법이다. 해부대 위에 재봉틀과 양산이 놓여 있다는 게 통념에 맞지 않지만, 바로 그 기이함이 시적·예술적 상상을 낳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운다.

- ① 르네 마그리트의 생애
- ② 초현실주의 유파의 탄생
- ③ 현대미술과 상상력의 소멸
- ④ 데페이즈망에 대한 관심과 의의

20. ㉠과 같은 표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조지훈, 「승무」
- ②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③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④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